

## 哲學 意義와 範圍 (完)

韓稚振

### 六. 哲學의分類

古代 希臘에서부터 哲學을 論理, 物理, 倫理의 三種으로 區分하였스니 『아리스토텔[아리스토텔레스]』以後에 普通 流行한 分類이다. 論理는 智識의 法則과 眞理의 標準을 取扱하는 學問이다. 現代에 와서 이 部分의 學問을 認識論이라 하는대 智識의 起源과 標準을 經驗主義와 合理主義의 見地에서 論及한다. 以外에 實際主義(푸락마티즘)의 認識論도 論及하게 된다. 物理란 것은 現代의 物理學과는 大端히 다른 것으로 一切 自然現象을 研究하는 學問이었다. 宇宙學, 人生의 目的과 靈魂의 實在를 研究하는 自然哲學이다. 現代에 와서는 이 部分의 問題를 宇宙論과 形而上學으로 分하였는데 宇宙論은 時空間問題, 生命의 起源과 性質, 進化論, 目的論 問題 等を 取扱하고, 形而上學은 自然 現象의 背後에 있는 根本的 有實 存在를 探究하는 것이다. 이 形而上學의 取扱問題는 唯物論과 唯心論의 見地에서 一元論, 二元論, 多元論을 論及하게 된다.

倫理는 至高善에 關한 學問인데 政治學도 그 中에 包含되었다. 倫理學은 現代에 와서 道德的 價値의 學問이 되어 幸福主義, 功利主義, 自我主義, 愛他主義 等の 學說을 論示하게 되었다. 以外에 美學은 古代에 있어서 別로 研究한 바가 없고 現代에 와서는 美學을 倫理學과 가티 價値에 對한 學問으로 看做한다.

以上の 三區分은 中世紀에서는 採用되었고 現代에서도 만흔 參考가 되었다. 近世에 이르러 哲學의 分類는 心理學的 原理에 根據하여 普通 作成되는데 이는 特히 『칸트』(一七二四-一八〇四)의 著書에서 顯著히 차차 볼 수 있다.

칸트는 그 『純粹理性判斷』에서 智識論을 取扱하였스니 (一) 智識의 可能, 限界, 起源과 (二) 智識의 對象 問題를 論述하였다. 이 智識對象論은 實體論

과 같다. 『實踐理性判斷』은 意志行動의 動機와 標準을 論한 倫理學이다. 人間의 行爲의 條件과 規範은 個人的 意志에만 限하지 안코 社會意志도 人間 行爲를 支配하는 것도 事實이니 道德學은 社會學과 自然히 關係되는 것이다. 다시 사람으로 하야금 社會의 共同 興味를 가지게 하는 教育學도 必要하다. 『칸트』의 『判斷의 批判』은 感情에 關한 論述인데 十八世紀 中葉부터 이 方面의 研究를 獨立하야 美學으로 看做하게 되었스니 哲學의 重要한 部分이 되었다.

以上의 分類는 哲學 研究의 本問題에 限한 것이어니와 哲學을 研究하는데 必要한 豫備學問은 (一) 哲學史이니 이는 哲學思想의 發展을 □考한다. (二) 心理學은 心的 活動의 法則을 研究하는 것이니 哲學 研究에 必要한 豫備學 이다. 論理學은 思考의 法則을 推知하는 것이니 認識論의 必要한 部分이다.

以上 모든 人生의 學問을 淨化하고 聖化(愛)라는 宗教가 있다. 이는 사람 의 知情意(眞善美)의 三者를 包括한 純潔淸淨의 理想이다. 聖愛는 宗教의 內 容이오 目標이다. 잘아서 哲學, 藝術, 道德을 다 聖潔케 하는 全人的 理想이 다. (了)